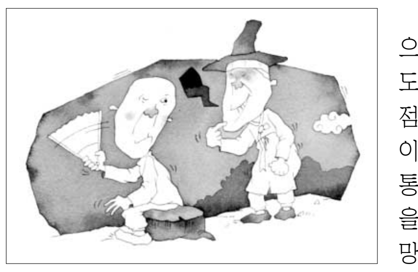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2〉 부채

곧 장마가 끝날 것이다. 이후에는 불볕더위가 기다리고 있다. 짚신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노모처럼 비가 와도 걱정, 해가 이글거려도 걱정이다. 이래저래 중생계에선 근심이 끝날 날이 없다. 그 때문에 사바세계를 인토(忍土)라고 했나보다.

더위는 밀짚모자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긴 하다. 다만 두루막 차림의 평상복일 때에 한정된다. 가사장삼을 수했을 때는 맨머리이어야 제대로 어울린다. 그래서 방포원정(方袍圓頂)이라고 했다.

네모진 가사(方袍)와 둥근머리(圓頂)는 수행납자를 상징하는 말이다. 더욱이 공식 행사장이나 의전이 필요한 격식있는 자리의 태양아래에선 부채만이 사바세계의 열고(熱苦)를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얼마 전 어느 교구본사 주지진산식에 갔더니 부채를 정말 많이 준비해 놓고서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남방(동남아)의 스님들은 거의 모자를

부채질하는 선사에게 못마땅하다는 듯 따지자 “그대는 바람의 성품만 알고 쓰임은 모르는구나”

쓰지 않고 오직 부채에만 의존한 채 더위를 이겨내는 모양이다. 또 헝겊으로 만든 자줏빛 부채에는 지퍼가 달려있어 호주머니 역할까지 겸하는지라 이를 이용하여 보시를 받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위의를 지키면서 보시를 받을 수 있는 지혜가 돋보였다.

하지만 북방의 스님들이 사용하는 종이부채에는 지퍼가 없다. 그래서 가끔 노상에서 봉투공양을 받고는 손에서 엉거주춤 호주머니로 옮겨 넣을 때 그 어색한 느낌은 설사 부채를 들고 있을지라도 감수해야 한다. 합죽선에 호주머니를 만들어 붙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선사들의 부채는 햇빛가리개나 보시를 받는 도구로만 만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꾼들의 부채기능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판을 장엄하기 위하여 소리와 추임새에 방점을 찍어주는 기능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분주무업(760~821)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푸른 비단부채에서 서늘한 바람이 풍족하느니라.” 선사는 푸른 비단부채(靑絹扇子)라고 했다. 또 혜근선사는 붉은 비단부채(紅羅扇)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 시절 선가에서는 지금처럼 종이부채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오히려 남방부채를 연상시킨다.

그건 그렇고 ‘여하시조사서래의(如何是祖師西來意)닛고’ 라는 그 심각한 질문에도 부채의 바람은 여유롭기만 하다.

비슷한 시대 살았던 마곡보철 선사 역시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가 다가와 물었다. “바람의 성품은 항상하여 두루하지 않는 곳 없거늘 선사께서는 어째서 부채를 흔들고 계십니까?”

어른의 위치에 있으면 설사 좀 덥더라도 위의를 지키면서 점잖게 앉아있을 일이지 경망스럽게 보통 중생들처럼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고 망상을 일으켜 부채질을 해대는 꼴이 마뜩찮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한 할(喝)을 날렸는데 거기에 대한 한 답방(答棒)이 날아오지 않을 수 없다.

“그대는 바람의 성품이 항상 있는 줄만 알았고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는 줄은 모르는구나.”

공기라는 체(體)만 알았지 바람이라는 용(用)을 모르니, 한 쪽으로 치우친 견해임을 일깨워 준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다. 당연히 물어야 할 말을 또 묻는다.

“무엇이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는 도리입니까?”

이에 선사는 다시 부채를 흔들어 보였다. (키득키득) 그 답변을 보충하자면 불감혜근 선사의 ‘부채송’이 좋을 것 같다.

오색구름 그림자 속에 선인이 나타나(彩雲影裏仙人現) / 붉은 비단부채를 들고 얼굴을 가리는구나(手把紅羅扇遮面) / 얼른 눈을 뜨고 선인을 보아야지(急須着眼看仙人) / 선인의 손에 든 부채를 보지 말라(莫看仙人手中扇).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수행에 진전없네… 집중수행 해볼까

안거기간 동안 집중수행을 하고 있는 안국선원 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수행을 한다고는 하는데 별 진전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침을 받을만한 기회도 별로 없고…. 수행을 하는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고민. 수행지도자들은 이럴 때 집중수행을 해보라고 권한다. 단기간이지만 모든 것을 끊고 수행에만 집중하게 되면 평상시 수행에서는 느끼지 못한 집중력과 환희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인다’는 집중수행. 집중수행은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느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시공간 제약 이겨내며 집중력 · 힘 생겨
일상수행서 못 느꼈던 환희심 체험
주말~일주일 단위 진행…목표 명확해야

▶ 집중수행 해 보니…

제주 화북 1동에 사는 김한삼(31)씨. 7월 31일부터 제주 원명선원에서 시작된 일주일간의 집중수련회에 참가하고 있는 김 씨는 어느 누구보다도 집중수련의 ‘참맛’을 잘 알고 있다.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병세에 차도가 없었지만 우연히 지난해 여름 집중수련에 참가한 뒤로 병세가 호전되는 것을 느꼈다. 그 뒤로 스스로 일정을 정해 집중수련을 했는데, 지금은 10년 동안 먹어오던 약도 끊었을 정도로 나아졌다.

김 씨는 “집중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용맹정진하는 집중수행과 일상수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집중수행이 일상수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부에 진척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서울 청담고 박주란(37) 교사는 위빠사나 수행처인 서울 보리수선원에서 1년간 집중수행을 포함해 여러 차례 집중수행을 했다.

박 교사는 “공간이 제한되고 시간에 제약을 받고 묵언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기 쉽고, 자기 자신을 너무 속속들이 보게 되면서 실망도 크다. 하지만 나 자신을 정확히 보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이겨나가다 보면 집중력과 힘이 생긴다. 그리고 그 힘이 일상수행으로 이어지면서 탄력을 받게 된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 집중수행 하는 곳

참선 집중수행을 하는 곳으로는 서울 안국선원 · 금강선원 · 길상사 · 보림선원 · 현정선원, 대구 여래선원, 제주 원명선원 등이 있다.

금강선원(02-445-8484)은 봄 · 가을 학기로 두 차례 진행되는 4개월의 기초참선 과정에서 이 과정이 끝나는 마지막 1주일동안 집중수행을 하며, 보림선원(02-914-6187)은 동계와 하계 두 차례 1주일 철야정진으로 집중수행을 한다. 또 현정선원(02-582-9371)도 7월 30일 집중수행에 들어가 8월 6일까지 진행한다. 대구 여래선원(053-744-9009)은 좌선과 경행 수련을 하는 7월 집중수행을 시작했다.

길상사는 평상시에는 자유롭게 선방을 운영하지만 매달 넷째 주 주말마다 ‘주말 선수련회’를 통해 집중수행을 한다. 그리고 동계와 하계로 나눠 ‘특별 선 수련회’를 초등부 · 중고등부 · 일반부로 나눠 3박4일간 진행한다. 제주 원명선원(064-755-3322)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7일간의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3~4차례씩 운영한다.

안국선원(02-732-0772)은 3개월의 안거기간 동안에는 평상시보다 정진시간을 2시간 늘려 집중수행을 하며, 인천 용화선원(032-872-6061)과 통도사 부산포교원(051-816-2241)은 산철에는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안거 때는 보다 엄격하게 하면서 수행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하는 곳은 서울 보리수선원 · 연방죽선원, 천안 호두마을, 김해 반냐라마가 있다.

보리수선원(02-517-2841)은 매월 한 차례씩 8일간 집중수행을 한다. 평상시에는 별다른 제약없이 수행이 가능하지만 집중수행 때에는 새벽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묵언을 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행을 해야 한다.

반냐라마(055-331-2841)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중고생 · 청소년 · 대학생 · 일반인 등 계층별로 5일간 일정으로 집중수행을 하며, 주말마다 ‘주말집중수행’도 한다.

호두마을(041-567-2841)도 월 1회 6일간의 집중수행과 연 2회 특별집중수행을 하며, 연방죽선원(02-3463-3480) 역시 여름과 겨울철에 10일간 일정으로 집중수행을 한다.

▶ 주의할 점

제주 원명선원 선원장 대효 스님은 수행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 집중수행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고 말한다.

대효 스님은 “1주일 정도의 단기간을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행 효과가 높고 생활로 돌아가더라도 수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리수선원 선원장 붓다락키타 스님은 “자기변화 과정을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생활과 분리된 상태에서 수행한다는 긴장감이 수행욕구를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집중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안국선원 홍법운영팀장 은암거사는 “집중수행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신도들의 반응을 들어보기도 했는데 성취감이 높아지면서 수행에 자신감이 붙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준비없이 하는 집중수행이라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집중수행에 임하면서 뚜렷한 목표치를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겠다는 치열한 구도정신이 있어야 하며, 순간순간의 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또 집중수행은 말 그대로 평상시의 수행을 일정기간 집중해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수행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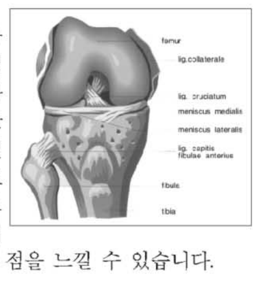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6. 7. 30 (월 · 화 · 수 · 목요일 주 · 야간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 과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 2677-5442
소연구원 : 032) 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